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 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최용준(Yong Joon (John) Choi, 한동대 교수)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Abraham Kuyper(1837-1920), a Dutch theologian, politician, journalist and educator tried to develop his idea of sphere sovereignty. He expanded Jean Calvin's theology which emphasized the sovereignty of God into all the spheres of our lives. This is so-called Neo-Calvinism. With this principle of sphere sovereignty, Kuyper argued that each sphere has its own sovereignty established by God so each sphere should respect other spheres and should not intervene others with its own power and authority. Based on this idea, Kuyper founded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 in 1880 and gave his opening address with the title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Sphere sovereignty)." Furthermore, his idea resulted in the so-called pillarization of the Dutch society. The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this thought both in the Netherlands and Korea are discussed. As a conclusion, we will reflect how Kuyper's insight can be applied.

Key Words: Abraham Kuyper, sphere sovereignty, neo-Calvinism, pillarization, social ethics

I. 서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교회의 개혁자요 일간지와 주간지를 창간한 언론인인 동시에 대학을 설립한 교육가이면서 정치가로 정당을 창당하여 수상까지 역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 소위 신칼빈주의(neo-Calvinism)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www.allofliferedeemed.co.uk).¹⁾ 특히 이 중에서도 그의 영역 주권(領域主權, sphere sovereignty,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은 네덜란드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사회에도 여러 면에서 사회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1) 2018년 네덜란드의 개신교 텔레비전 방송국인 VPRO(Vrijzinnig Protestantse Radio Omroep)는 19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하면서 그중 하나로 '위대한 아브라함(Abraham de Geweldige)'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루었다. www.youtube.com/watch?v=XUHsb4W-ook&ab_channel=kobayasukobayasu 참고. 또한, 2020년 11월 9일, 그가 태어나 부친으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은 마슬라우스(Maarsluis)의 개혁교회(Grote Kerk)에서는 그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에도 한(Edo Haan) 마슬라우스 시장, 휴고 드 용어(Hugo de Jonge) 당시 부총리(기독교민주연합(CDA) 소속), 조지 하링크(George Harinck) 자유대 역사학 교수, 카린 판 덴 브루커(Karin van den Broeke) 네덜란드 성서 공회 회장, 에릭 호스트라(Erik Hoekstra) 미국 도르트대학 총장 및 작가 요한 스넬(Johan Snel) 등 여러 강연자가 카이퍼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했다. www.youtube.com/watch?v=i463_4Yh7B8&ab_channel=HDCCentreforReligiousHistoryVU 참고.

그동안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해 다룬 논문(정성구, 2011)이나 저서(정성구, 2010) 및 역서들은 있으나(이상웅, 김상래, 2011, 박태현, 2020) 이 주제에 관해 국내에서 깊이 연구한 논문이나 저작은 이국운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중심으로 그의 정치사상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다룬 논문 외에 사회 윤리적 함의를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다(이국운, 2013). 해외에서도 카이퍼에 관한 논문이나 저작들은 매우 많으나 이 영역 주권이 가진 사회 윤리적 함의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자유 대학교에서는 개교 140주년 및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2020-2021학년도를 카이퍼의 해로 정하고 그의 공헌을 민주주의(democracy), 다양성(diversity)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요약하면서 그를 네덜란드 사회 개혁가(Social Entrepreneur)로 소개한다(www.youtube.com/watch?v=cg0p1pPPJFk&ab_channel=VrijeUniversiteitAmsterdam).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의 관련성에 관해 분석하겠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이 카이퍼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다룬다. 그 후 네덜란드 사회의 특징인 소위 ‘기둥화(pillarization)’를 통해 카이퍼가 어떻게 사회적 다양성을 변호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동시에 이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대해 네덜란드 및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한 후 이 사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결론을 맺겠다.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

1. 영역 주권

영역 주권이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대학, 기업, 가정 등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주권적인 통치를 행사하시므로 각 영역은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지며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카이퍼의 사상이다.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을 강조하면서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Kuyper, 1911-1912). 그는 당시에 국가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교회나 대학 같은 기관들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이 사상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의 신교회(新敎會, Nieuwe Kerk)에서 그가 설립한 기독교 대학인 자유 대학교(Vrije Universiteit) 개교기념 연설의 제목도 “영역 주권”이었다(Kuyper, 1880, 박태현, 2020). 이 대학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도 대학이 교회나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선언한 것이다. 그가 소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저술한 두 권의 저작 “반혁명의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1권 8장에서 그는 영역 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의 전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견딜 수 없는 폭정이다... 지금도 비록 다른 방식이지만 전능한 국가라는 교리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 주권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자유가 점점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위협에 다시금 노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가장 명확한 의미에서 절대적이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코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둘째, 주권의 이전은 제한된 의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런 이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놓아주셔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는다. 이전의 경우에도 주권은 하나님 안

에 있으며 인간은 자신의 기관이나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또한 세 번째로 이전된 사람들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많은 별개의 영역에 퍼져 있으며 영역마다 다른 성격이다. 가족의 영역, 교회의 영역, 과학과 예술의 영역, 기술과 발명의 영역, 무역과 산업의 영역, 농업, 사냥과 어업의 영역,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운 사회단체의 영역도 있다. 이 모든 영역 위에는 인간을 도구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 권위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각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각 보유자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Kuyper, 1916: 265-266).

이러한 영역 주권 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카이퍼의 성경적 창조관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질서 있게 그리고 “종류대로” 만드셨고(창 1:11-12, 21, 24-25) 따라서 각자 고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은 삶의 각 영역이 고유한 권한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다른 사명과 의무(de taak en de plicht)도 있다(Kuyper, 1912: 299).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통치하시는 창조 질서는 다양한 사회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규범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영역 주권의 원칙은 창조의 경계와 역사적 차별화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영역마다 자체적인 독립성과 규범이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규범을 인식해야 가정이 비즈니스처럼 되지 않으며 교회나 국가도 각각 제한된 능력을 벗어나 인간 활동 전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주권의 개념은 현재 기독교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통치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으며, 이를 이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다(Domenico & Hanley, 2006: 102). 나아가 박, 판 홀톤, 크라브담 및 아이어스(Bak, van Holthoon, Krabbendam, & Ayers)는 기독교민주당원들에 의한 영역 주권 사상의 증진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 복지국가의 창설로 이어졌다고까지 주장한다(Bak, van Holthoon, Krabbendam, & Ayers, 1996).

둘째로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중세의 교회 중심주의(ecclesiasticism)와 근대의 세속주의(secularism)적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이다. 중세의 교황적 군주제(Papal Monarchy)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금도 천주교가 강한 독일의 쾰른이나 로마의 피렌체 같은 도시를 보면 도시 한 가운데 대성당이 있으며 다른 어떤 건물도 이 성당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없다. 예술 분야에서도 종교적 주제는 주요 후원자인 교회에 의해 장려되었고 정치 또한 교회의 지시에 따르는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경제 길드와 농업 분야도 교회가 감독했으며 가족 영역에서는 출산을 규제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여러 대학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부유한 상인계급이 출현했으며 일부 상인들은 교회와 무관하게 예술의 후원자가 되었고 개신교는 종교개혁(Reformation)을 통해 시민 정부, 예술, 가족, 교육 및 경제를 교회의 통제로부터 해방하였다. 개신교는 교회주의와 달리 삶 전체가 예배임을 강조했으나 이후에 나타난 세속적 계몽주의는 종교를 완전히 없애려 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영역 주권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직접 책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이퍼는 사회 영역들을 각각 분리하였고 그 결과 국가 절대주의도 반대한 것이다(Kuyper, 1912: 151).

셋째로 이 영역 주권 사상은 적용할 분야가 많이 있다. 가령, 가족 제도는 국가, 교회 또는 우발적인 사회적 요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므로 가족을 정의하거나 그에 관한 법을 공포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생 헌신하며 후손에 대한 언약으로 정의되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나 다른 외부 권력에 의해 제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직접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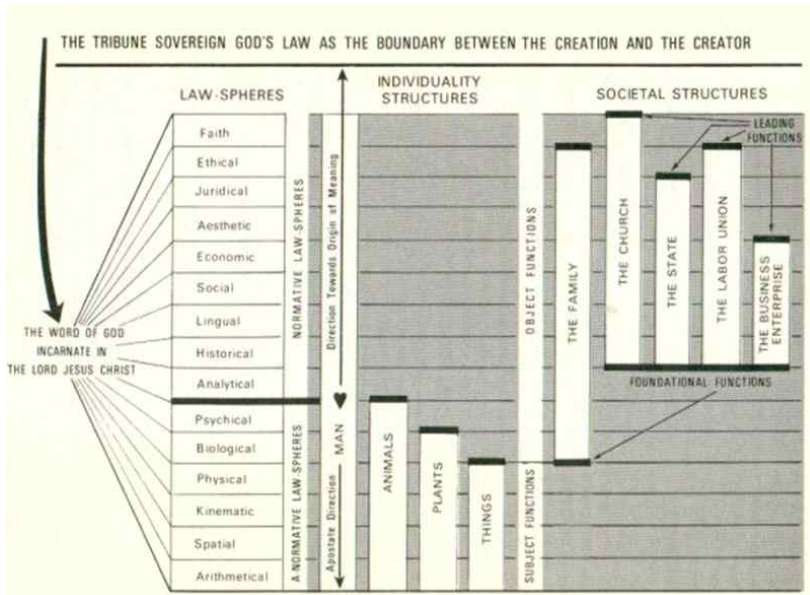
이 있는 부부에게서 시작된다. 하지만 가정의 영역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다(Kuyper, 1911(Deel 2): 439, 537). 그러나 특정 가족이 자신의 책임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은 관련된 민사적 불의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 국가나 교회도 연구소, 학교 또는 대학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은 해당 영역에만 관련된 법률이므로 학교 행정은 특정 능력과 분야를 합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역 단체는 무역에 해당하는 규칙만 적용해야 하며, 그 단체의 지도자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그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나치게 농업이나 어업 분야를 규제할 때, 농민과 어민들은 항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민운동도 다른 영역의 주권을 방해하지 않고 행동하는 본질적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영역 주권 사상이 잘못 적용된 예도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남아공에서 백인 정권에 의해 1948년에 법률화된 인종분리정책, 즉,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인종 등급으로 나누어 백인, 흑인, 유색인, 인도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통혼 금지, 출입구역 분리 등을 하는 등, '차별이 아니라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핑계로 사상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백인 지상주의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배후에는 그곳의 개혁교회(Nederduits Gereformeerde Kerk)가 인종차별적 해석을 하여 아파르트헤이트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자신의 영역 내에서 주권이 있다는 카이퍼의 사상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그의 영역 주권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범위 내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남아공의 상황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페르카윌(J. Verkuyl)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성경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신학이며 이단이라고 강조했다(Schutte, 2009). 결국,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벌인 남아공 백인 정부와 흑인 대표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넬슨 만델라 간의 협상 끝에 이 정책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고,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가 1994년 4월 27일에 완전폐지를 선언하였다.

이와 반면에 카이퍼를 계승한 도여베르트(H. Dooyeweerd, 1894-1977)와 폴렌호븐(Th. D.H. Vollenhoven, 1892-1978) 같은 학자들은 이 영역 주권 사상을 철학적으로 더욱 발전시켰으며(Dooyeweerd, 1935-6, 최용준, 2014: 43-102) 이는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기독교 철학 협회(www.christelijkefilosofie.nl)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도여베르트는 피조물에 15개의 양상 구조(수, 공간, 운동, 물리, 생물, 감각, 분석, 역사, 언어, 사회, 경제, 미, 법, 윤리, 신앙)가 있음을 밝히면서 각 양상은 그 자신의 독특한 법칙들에 따라 질서 지워지고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양상들을 '법칙 영역들(law-spheres)'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분석적 양상에서 신앙적 양상까지를 '문화적인 면'이라고 부르며 그 법칙들은 '규범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고', '실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법칙들은 지켜질 수도 있고 어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문화적 책임과도 연결되어 사람이 각 양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때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개현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는 파괴적이 되고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 분석적 양상 이하 양상들의 법칙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법칙들은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 양상은 상호 환치될 수 없는데 그는 이것을 '영역 주권의 원리'라고 불렀다. 이는 도여베르트가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주되심을 철학적, 우주론적

원리로 확장한 것이다. 각 양상은 그 ‘의미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 양상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가령, 생물적 양상의 의미의 핵은 생명력(vitality) 혹은 생명(life)이다. 또한, 각 영역에는 다른 영역들을 지향하는 의미의 모멘트, 즉 예기와 회기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유추(analogy)’라고 한다. 이 점을 도여베르트는 각 양상의 ‘영역보편성(sphere-universality)’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각 영역은 독립적인 영역 주권을 가진 동시에 시간 안에서 서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도여베르트는 이 양상 구조를 이용하여 사회구조도 명쾌하게 분석하였는데 가령 가정의 경우 기초양상은 생물적이지만 인도하는 양상은 윤리적이며, 교회는 기초양상이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신앙적이다. 국가는 기초양상이 역사적이지만 인도하는 양상은 법적이다. 노조의 기초양상도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윤리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기업은 기초양상이 역사적이지만 인도적 양상은 경제적이라고 분석했다(최용준, 2014: 43-10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출처: www.freewebs.com/reformational/modal%20aspects2.jpg

2. 기둥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결국 네덜란드 사회의 다원화를 낳게 되었다. 즉 여러 다른 세계관들을 가진 공동체는 각각 학교, 미디어, 정당, 노조 등과 같은 사회기관들과 함께 자체적인 “기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둥화”(Pillarization, *Verzuiling*)라고 부른다. 가령 카이퍼는 1872년에 개혁주의 일간지인 *De Standaard*를 창간하였고 1878년에는 주간지 *De Herout*에도 꾸준히 논설을 기고했으며, 1879년에는 그의 멘토였던 흐룬 판 프린스터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영향을 받아 개혁주의를 표방한 네덜란드 최초의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을 창당하여 당수가 되었고, 1880년에 학생들이 국가나 교회의 간섭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자유 대학교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개혁교회 및 기독교 사립학교의 설립도 정당화했다. 특히 기독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80년간 지속했던 소위 학교 투쟁(school struggle, *schoolstrijd*)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최용준, 2017: 81-89).

19세기 네덜란드 의회는 독립적인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자유롭고 보수적인 운동을 인정할 수 있는 비공식적 동맹과 선거단체로 통합되어 현대적 의미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투쟁은 특수 교육의 배제를 반대하는 고백 정당, 즉 기독교정당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848년에 자유주의적인 정치가 토르베케(Johan R. Thorbecke)의 주도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헌법은 조건만 갖추면 사립학교도 설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기독 사립학교들이 설립되었지만, 재정은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개신교 측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het Réveil)은 자유주의자들의 계몽주의적 모더니즘 및 이에 기반을 둔 진보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고 전통적 칼빈주의 교리와 경건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운동으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부흥 운동의 지도자들은 예배 생활 및 마음의 회복, 가정의 개혁,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 및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강조하면서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도덕적 개선과 삶의 회복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성국, 2009: 33). 이 때 흐룬 판 프린스터리는 네덜란드 부흥 운동의 창시자였던 빌더데이크(W. Bilderdijk)의 영향을 받아 국회의원으로서는 사립학교로서 기독학교의 설립 권리와 교육의 자유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60년에 그는 개신교 기독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국립 학교교육협회(de Vereniging voor Christelijk Nationaal Schoolonderwijs)를 설립했으며 그를 계승한 카이퍼는 1872년 학교법 반대 동맹(het Anti-Schoolwet Verbond)의 창립에 참여했고(www.onderwijsgeschiedenis.nl/Tijdvakken/De-Schoolstrijd) 이 동맹이 1879년에 반혁명당이라는 최초의 정당으로 발전한 것이다. 나아가 1878년 당시 수상이었던 판 드 꼬벨로(K. van de Coppello)가 사립학교들이 경비를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새 법안을 제안하자 개신교와 천주교 신자들은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어 당시 국왕인 빌름(Willem) 3세에게 30만 명의 개신교도와 10만 명의 가톨릭교도가 국민청원서(Volks petitionnement)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왕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통과되었다. 그러자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들은 더욱 연합하여 공립 및 사립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완전한 평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의 하위계층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노동자 계급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 운동으로 시작한 후 노동조합운동으로 발전하여 결국 정당을 형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상한 사상은 부르주아의 자본주의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독재로 대체된 후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이었다. 하지만 카이퍼는 이것을 세속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영적 대립(*antithese*)이 정치적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서 중도적으로 기독 고용주, 상인,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려 했다.

이와 동시에 투표권 확대와 노동자의 사회적 여건 개선도 중요한 정치적 주제가 되었다. 투표권 확대 문제는 기독 정당과 자유주의 양쪽 모두에 분열을 일으켰다. 사회 민주 노동당(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partij)의 경우 대다수 지지자가 참정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투표권의 확대가 필수적이었고 반혁명당의 지지자들인 소위 '서민들(kleine luyden)'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917년 헌법 개정으로 정부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원하게 되자 그동안의 대립은 사라졌고 학교 투쟁은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시 네덜란드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동안 쌓인 정치 사회적 갈등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독화를 확인했다. 그 후 남성에 대한 보편적 참정권이 도입되었으며 2년 후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되었다. 그 후 기독 정당은 보편적 참정권을 통해 그

들의 지지자들을 확장하여 1918년부터 1994년까지 항상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기동화는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구되었으며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은 많은 접촉 없이 공존했다. 그 중에도 정치, 노동조합, 학교, 방송, 언론 및 청소년운동은 이 기간에 강력히 서로 구분되었다. 동시에 한편으로 기동화, 다른 한편 협력으로 긴장이 완화되어 1917년 이후 각 기동의 지도자들은 동역했다. 이전 시대를 특징지었던 큰 대립들은 합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기동화의 많은 기관이 점령자인 독일군에 의해 일반기관으로 대체되자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공산주의, 가톨릭, 개신교계가 독일 점령군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기동화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겨났다. 그 결과 모든 정당의 진보파가 참여할 수 있는 네덜란드 국민운동(Nederlandse Volksbeweging)이라는 통일당이 전후인 1945년에 설립되었다. 이 당은 권위주의적 사상에 강하게 반대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어 당시에는 가히 획기적인 아이디어(Doorbraak-gedachte)라고 불렸다. 하지만 일부 네덜란드 주교의 강한 반발로 결국 실패하여 1951년에 이 당은 해산되었다. 그러자 일부 가톨릭 신자들이 개인적인 주도권을 발휘하여 작고 진보적이며 평화주의적인 기독교 민주연합(Christen Democratische Unie)과 자유당(VDB: Vrijzinnig Democratische Bond)은 사회민주노동당(SDAP: 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partij)과 합병하여 함께 노동당(PvdA: Partij van de Arbeid)를 형성했다. 이 노동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획기적인 정당이었으며 네덜란드의 주교들은 1954년에 성명을 통해 이를 반대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결국 네덜란드 사회는 신속히 전쟁 이전의 기동화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탈기동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7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고백당 즉 기독교민주당은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번영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발전이 기동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고 노년층에 반대하는 청소년 문화도 등장했다. 세속화로 인해 고백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는 것을 보며 기동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했다. 그 결과 강력한 기동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공영 텔레비전은 지금도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있다. 네덜란드에는 공립 및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또한 기동화의 유산이다. 가령 한 지역에 개신교와 가톨릭 사립학교 그리고 공립학교가 있으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자녀들이 갈 학교를 선택한다. 그 외에도 개혁교회(vrijgemaakt) 회원들은 자체(초등 및 중고등) 학교, 신문 및 노동조합과 같은 기타 조직이 있다. 기타 여러 경건주의 개혁교회 회원들도 자체 학교, 신문 및 정당을 설립했다. 그러자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모슬렘 이민자들도 자체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사회의 기동 구조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다. 카이퍼 당시의 세 가지 기동은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으로 각 영역은 정치, 방송, 교육, 언론, 노조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고 그 후 세속적 기동은 양분되어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기동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Lijphart, 1980).

각 기동의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정당의 경우 개신교에는 과거에 ARP(반혁명당, De Anti-Revolutionaire Partij, 1879-1977; 개혁주의), CHU(기독교-역사연합, De Christelijk-Historische Unie, 1908-1977; 국가개신교회), RPF(개혁정치연합, De Reformatorische Politieke Federatie, 1977-2000; 개신교) 및 GPV(개혁정치연맹, Het Gereformeerd Politiek Verbond, 1948-2000; 자유 개혁주의)가 있었고 천주교에서는 RKSP(로마 가톨릭 정당, De Rooms-Katholieke Staatspartij, 1926-1945) 및 KVP(가톨릭 국민당, De Katholieke Volkspartij, 1945-1977)이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경우 SDAP(사회-민주

노동당, De Sociaal-Democratische Arbeiders partij, 1894-1945)가 있었던 반면 중립적 자유주의 노선에는 VDB(자유민주연합, De Vrijzinnig Democratische Bond, -1946; 좌익-자유), LU(De Liberale Unie, 1921; 고전적 자유), Vrije Liberalen(-1921; 보수적 자유), LSP(자유국가당, De Liberale Staatspartij)/Vrijheidsbond (1921-1945) 및 PvdV(자유당, De Partij van de Vrijheid, 1946-1948)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개신교 정당은 SGP(국가개혁당, De Staatkundig Gereformeerde Partij, 1918 이후) (실험적 개혁주의), CDA(기독교-민주연합, Het Christen-Democratisch Appèl, 1977 이후) (에큐메니컬) ChristenUnie(기독교 연합, 2000 이후) (정통-개신교/복음적)이 있다. 천주교도 CDA(1977 이후 에큐메니컬)이며 사회주의 정당으로는 PvdA(노동당, De Partij van de Arbeid, 1945 이후), SP(사회당, De Socialistische Partij)가 있고 중립적 자유주의 노선에는 VVD(자유민주국민당, De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1948 이후)와 D66(민주 66, Democraten 66, 진보적 자유)가 있다.

다음에 방송의 경우 개신교에는 NCRV(네덜란드 기독교 라디오 연합, De Nederlandse Christelijke Radio Vereniging, 정통-개혁주의), EO(복음방송, De Evangelische Omroep) 그리고 VPRO(자유 개신교 라디오방송, Vrijzinnig Protestantse Radio Omroep)가 있으며 천주교에는 KRO(가톨릭 라디오방송, De Katholieke Radio Omroep)가 있고 사회주의에는 VARA(노동자 라디오 아마추어 연합, Vereniging van Arbeiders Radio Amateurs)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AVRO(일반 라디오방송 연합, De Algemene Vereniging Radio Omroep)가 있다.

노동조합의 경우 개신교에 CNV(전국 기독교 노조, Het Christelijk Nationaal Vakverbond, 1909 이후) NWV(네덜란드 노동자연맹, Het Nederlandsch Werkliedenverbond) Patrimonium(개혁주의 1876 이후)이 있고 천주교에는 NKV(네덜란드 가톨릭 노조, Het Nederlands Katholiek Vakverbond, 1925-1976) 및 FNV(네덜란드 노조 연합, De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1976 이후)가 있으며 사회주의에는 NVV(네덜란드 노조 연합, Het Nederlands Verbond van Vakverenigingen, 1906-1976), FNV(네덜란드 노조운동 연합, De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 1976 이후)가,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ANWV(네덜란드 일반 노조, Het Algemeen Nederlandsch Werklieden-Verbond)가 있다.

신문의 경우 개신교에는 De Standaard(1872-1944, 개혁주의), Trouw(1943-현재, 개혁주의), Friesch Dagblad(개혁주의), Kwartetbladen(1971년에 Trouw와 통합; 개혁주의), De Rotterdammer, de Nieuwe Haagsche Courant, de Nieuwe Leidsche Courant en het Dordtsch Dagblad, Nederlands Dagblad(자유 개혁주의) 및 Reformatorisch Dagblad(개혁주의)가 있으며 천주교에는 De Maasbode(De Tijd가 됨), De Tijd(Haagse Post와 합침 in HP/De Tijd), Katholiek Nieuwsblad (1983 이후), De Volkskrant(1919 이후) 및 지역 로마 가톨릭 신문들이 있고 사회주의에는 Het Vrije Volk(1945-1991) 및 Het Parool이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에는 Nieuwe Rotterdamsche Courant(자유적) 및 Algemeen Handelsblad(자유적, NRC Handelsblad와 통합), Algemeen Dagblad(자유적), Het Vaderland(자유적), De Telegraaf(중립적) 및 De Courant/Nieuws van de Dag(중립적)이 있다.

학교로는 개신교의 경우 School met de Bijbel(성경을 가진 학교)라는 개신교-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있고 천주교의 경우 로마 가톨릭 학교가 있으며 나머지 두 기둥은 모두 공립학교이다. 대학을 보면 개신교의 경우 Vrije Universiteit (자유 대학교), Protestantse Theologische Universiteit Kampen (깜빡 신학교, 개혁주의)가 있지만, 천주교는 Radboud Universiteit Nijmegen(네이메헌 대학교)와 Universiteit van Tilburg(틸부르흐 대학교)가 있

고 나머지 두 기둥은 공립대학교들이다.

대학생 단체로 개신교의 경우, SSR(Societas Studiosorum Reformatorum, 1905-1969) 1886-1905 "GSV Hendrik de Cock", 천주교는 AHC(만성연합, Aller Heiligen Convent, 1971-현재; 1908-1970 UKSV/UKSN), 사회주의는 ASV(일반 학생협회, Algemene Senaten Vergadering, 1892 이후) FUB(Federatie van Unitates en Bonden, 1948 이후; 1913-1927, UNS)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는 ASV(일반 학생협회)와 FUB(Federatie van Unitates en Bonden, 1948 이후; 1913-1927, UNS)가 있다.

청소년 단체로는 개신교의 경우 NJV(네덜란드 청소년 연합, Het Nederlandsch Jongelings Verbond), 천주교는 KAJ(가톨릭 노동자 청년, De Katholieke Arbeiders jeugd) KV(가톨릭 식자들, De Katholieke Verkenners), 사회주의는 AJC(노동 청년 중심, De Arbeiders Jeugd Centrale) 그리고 중립적 자유주의는 NPV(네덜란드 개척자들 협회, De vereniging De Nederlandsche Padvinders)가 있다.

끝으로 병원의 경우, 개신교는 Oranje-Groene Kruis (오렌지-녹십자), 천주교는 Wit-Gele Kruis (백-황적십자), 나머지는 둘다 Groene Kruis (녹십자)이다(Blom, 2000, Dam, 2011, Huyse, 1987, Lijphart, 1968, Rossem, 2012, Stuurman, 1983).

3. 사회 윤리적 함의

카이퍼는 이처럼 영역 주권을 강조하면서 모든 권리가 개인에게서 나온 프랑스의 대중주권(popular sovereignty)과 국가에서 나온 독일의 국가 주권(state-sovereignty) 사상을 모두 거부했다. 그 대신 그는 학교와 대학, 언론, 기업 및 산업, 예술 등 사회의 “중간기관들(intermediate bodies)”을 존중했다. 각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위해 그는 인본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 공동체가 자체 학교, 신문, 병원, 청소년운동 등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네덜란드 국민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군주제를 선호했고 오렌지 왕가가 역사적 및 종교적으로 네덜란드 국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서민들’로 불리는 중산층 정통개혁집단의 이익을 옹호했으며 세속적 정치와 종교적 정치를 구분했다. 그러자 종교와 정치의 혼합을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카이퍼를 비판했지만, 가톨릭 신자들은 종교적으로 영감을 받은 정치를 실천하기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집단에도 호소했기 때문에 카이퍼의 자연스러운 동맹이었다. 반면에 계급갈등을 선포한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노동자들에게 위협했는데 이에 대해 카이퍼는 혁명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에 만족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노동법을 채택하고 노동 환경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가나 교회는 연구소, 학교 또는 대학에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은 해당 영역에만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 행정은 특정 능력과 기술에 따라 합법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무역조직에서는 무역규칙만 적용해야 하며, 리더는 자신의 전문 지식수준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카이퍼는 강조했다. 농업 또한 정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할 때마다 농부들은 국가가 내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카이퍼의 사회생활에 대한 관점은 1880년 *De Standaard*에 등장한 “당신의 가족도 반혁명적(*Antirevolutionair óók in uw huisgezin*)”이라는 논설에 나타난다(Kuyper, 1880). 여기

서 그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정상적이고 완전한 가정에는 항상 어디서나 다섯 가지 관계가 발생하는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및 자신과 이방인 간의 관계이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대하면서 권위에 대한 존중과 정의를 배우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부드러운 삶의 감각, 남편과 아내 간에는 상호 간의 신뢰, 관용 및 존중, 형제자매 간에는 자유, 평등 및 형제애, 봉사하는 사람들과 봉사 받는 사람들 간에는 섬김을 배운다. 이는 동양의 유교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중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카이퍼가 이 오륜을 알았다면 아마 이것도 일반 은총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그가 1891년 11월 9-12일에 암스테르담에서 발족한 제1차 기독교 사회적 콩그레스(Christelijk-Sociaal Congres)에서 행한 그의 연설이다. 당시의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룬 그의 연설은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사회 문제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Kuyper, 1891, 조계광, 2005). 여기서 카이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래 7가지 근본 원리를 제시했다. 첫째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둘째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자유를 분명히 구분해야 해야 어떤 영역도 절대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간 사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불의한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혁명적 행동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므로 부자도 단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권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카이퍼는 노동자들은 그에 합당한 삯을 받아야 하며 일한 이후에는 반드시 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노령에 이르러 더는 일할 수 없을 때도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도 언급했다(Praamsma, 1985; 이상웅, 김상래, 2011: 210-213) 이러한 기독교 사회 운동은 그 후 계속 발전되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덜란드에는 기독교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의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www.stichting-csc.nl).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이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은 어떤 사회 윤리적 함의를 가지는가? 첫째로 한국사회는 아직 남아 있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했으며 카이퍼는 이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근대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큰 공헌을 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병원들을 건립하여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학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동시에 청교도적 직업윤리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일조하였고 예술 등 다양한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손봉호, 조성표, 2012).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정치 분야에는 카이퍼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회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 정당 정치에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기독교 정치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만큼 기독교인들이 전액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지원을 받아도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교육이라고 본다. 네덜란드에는 학원이 없고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면 오후 3시 전후에 귀가한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음악학교에 가고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축구 클럽에 갈 수는 있어도 한국처럼 국어, 영어 및 수학을 다시 배우기 위해 학원에 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나아가 수능시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집으로 와야 하는 획일화된 틀에 갇힌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수능을 잘못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 없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며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덜란드의 신실한 가정을 보면 가정교육이 살아 있다. 교회, 학교 및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다. 특히 가정에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식사 후에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대화하여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한다(최용준, 2016). 한국의 경우 많은 부모가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의존하는데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해 각자의 영역을 넘어 타협함으로써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카이퍼가 기독교 사회적 회의에서 강조한 일곱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III. 결론

카이퍼는 그의 영역 주권 사상을 이론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대학, 정치, 언론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회적 기업가였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지금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그가 창설한 반혁명당은 1977년에 가톨릭과 동맹하여 기독교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정당은 여전히 카이퍼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유럽연합의 기독교민주당인 유럽 국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도 그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기타 교회, 교육, 언론, 노조 등 각 영역에서 여전히 그의 유산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및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앞으로 더욱 정의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론을 극복하면서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독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기독 대안학교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교육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각계각층에서 노력하는 동시에 정경유착의 고리도 단호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해 네덜란드의 기독 사회적 콩그레스와 같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 단체들이 연합하는 운동이 일어나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 영역에서 실제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손봉호, 조성표 (2012).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 서울: 예영.
- [Son, B. H., Cho, S. P. (2021).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and Christianity: The Christian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Seoul: Jeyoung]
- 이국운 (2013).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 주권론을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18(3), 127-155.
- [Lee, K. W. (2013).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Faith and Scholarship*. 18(3), 127-155.]
- 이상웅 김상래 역 (2011).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
Praamsma, L. (1985).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서울: 복 있는 사람.
- [Lee, S. W. & Kim, S. R. (2011). *Let Christ Be King: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Seoul: One who is blessed. Trans. Praamsma, L. (1985). *Let Christ Be King: :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imes of Abraham Kuyper*. Ontario: Paideia Press]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서울: 킹덤북스.
- [Chung, S. K. (2010). *The Life and Thought of Abraham Kuyper*. Seoul: Kingdom Books.]
- 정성구 (2011). 카이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월드뷰**. 24(7), 4-7.
- [Chung, S. K. (2011). Calvinism as Kuyper's Christian Worldview. *Worldview*. 24(7), 4-7]
- 조계광 역 (2005). **기독교와 사회 문제.** Kuyper, A. (1891)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 Rede bij de opening van het Sociaal Congres, op 9 November 1891 gehoude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ho, G. G. (2005). *Christianity and Social Problems* Seoul: Word of Life. Trans. Kuyper, A. (1891). *Het sociale vraagstuk en de christelijke religie. Rede bij de opening van het Sociaal Congres op 9 November 1891 gehouden*. Amsterdam: J.A. Wormser]
- 조성국 (2009). 네덜란드 기독교 학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학교의 과제에 주는 함의. **기독교 교육논총**. 20(1), 21-52.
- [Cho, S. K. (2009). The Implication of the Dutch History of Christian School Movement to the Tasks of Korean Christian Schools. *Christian Education Journal*. 20(1), 21-52]
- 최용준 (2014). **유럽 기독 지성의 흐름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Choi, Y. J. (2014). *The Trend of Christian Intellectuals in Europe and Korean Diaspora*. Seoul: Jeyoung Communication Press.]
- 최용준 (2016). Research 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신앙과 학문**. 21(2), 231-257.
- [Choi, Y. J. (2016). Research 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 historical approach. *Faith and Scholarship*. 21(2), 231-257.]
- 최용준 (2017). 네덜란드 교육의 재정 정책에 관한 고찰: 역사적 접근. **기독교 대안학교의 재정**. 서울: 예영.
- [Choi, Y. J. (2017). A Research on the Financial Policy about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a historical approach. *The Financ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Seoul: Jeyoung]
- Bak, H. & Holthoon, F.L. van & Krabbendam, H. & Ayers, E. L. (1996). *Social and Secure?: Politics and Culture of the Welfare State: a Comparative Inquiry*.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 Blom, J.C.H. (2000). Talsma, J. (red.). *De verzuiling voorbij. Godsdienst, stand en natie in de lange negentiende eeuw*, Amsterdam: Het Spinhuis.
- Dam, P. van (2011). *Staat van verzuiling: over een Nederlandse mythe*, Amsterdam: Wereldbibliotheek.
- Domenico, R. P. & Hanley, M. Y. ed. (2006). *Encyclopedia of Modern Christian Politics*. Bost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3 dln. Amsterdam: H.J. Paris.
- Kuyper, A. (1880). *Antirevolutionair óók in uw huisgezin*, Amsterdam: De Standaard.
- _____. (1911-1912). *Pro Rege: Het Koningschap van Christus* Deel 1-3. Kampen: J.H. Kok.
- Kok, J.H., Ballor, J.J., Flikkema, M. (Eds.) (2016-2019). *Pro Rege (Vols. 1-3): Living Under Christ the King*. Bellingham, WA: Lexham Press.
- _____.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Eerste Deel: De Beginselen*, Kampen: J.H. Kok.
- Lijphart, A. (1968). *Verzuiling, pacificatie en kentering in de Nederlandse politiek*, Amsterdam: De Bussy.
- _____. (1980). *Verzuiling, pacificatie en kentering in de Nederlandse politiek*. Haarlem: Becht.
- Rossem, M. van (2012). 'Verzuiling, een versleten paradigma', *Nederland volgens Maarten van Rossem*, Nieuw Amsterdam Uitgevers, 56-67.
- Schutte, G.J. (2009). "Boeren", *Het Gereformeerde Geheugen*, Amsterdam: Bert Bakker.
- Stuurman, S. (1983). *Verzuiling, kapitalisme en patriarchaat*, Nijmegen, dissertatie. alloflifereedeemed.co.uk
www.christelijkefilosofie.nl
www.freewebs.com/reformational/modal%20aspects2.jpg
www.onderwijsgeschiedenis.nl/Tijdvakken/De-Schoolstrijd
www.stichting-csc.nl
www.youtube.com/watch?v=XUHsb4W-ook&ab_channel=kobayasukobayasu
www.youtube.com/watch?v=cg0p1pPPJFk&ab_channel=VrijeUniversiteitAmsterdam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며 언론인인 동시에 교육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가 영역 주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그 사회 윤리적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장 칼뱅의 신학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켜 이른바 신칼빈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영역 주권의 원칙에 따라 카이퍼는 우리 삶의 각 영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고유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힘과 권위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카이퍼는 19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 대학교를 설립하고 “영역 주권(*Sovereiniteit in eigen kring*)”이라는 제목으로 개교 연설을 했다. 나아가 그의 사상은 네덜란드 사회의 소위 “기둥화(*Verzuiling*)”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관해 설명한 후 이 사상의 사회윤리적 함의를 네덜란드 및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하겠다. 결론적으로 카이퍼의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이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 신칼빈주의, 기둥화, 사회윤리